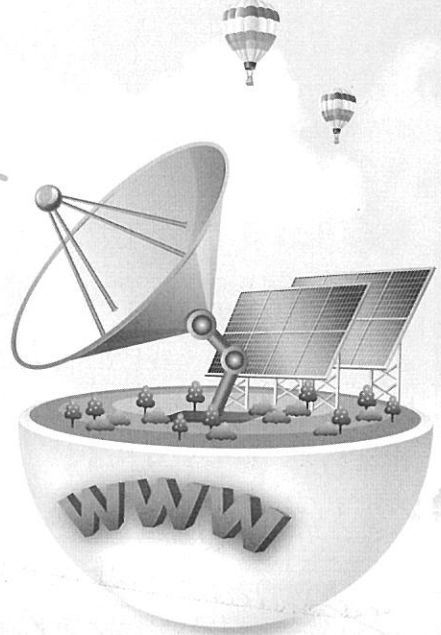


지구촌 양계 News



미국

1억 원 넘는 닭집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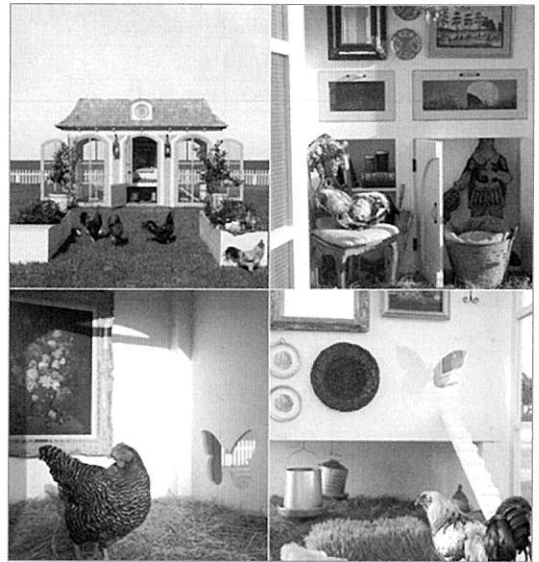
1억 원 넘는 닭집이 공개돼 화제다.

미국 고급 백화점 체인 니먼 마커스는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2012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탈로그를 통해 1억 원 넘는 닭집을 소개했다.

니먼 마커스는 매년 고객들에게 환상적이고 기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억 원 넘는 닭집은 '닭이 사는 집'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가격은 무려 10만 달러(약 11억 원)다.

이 닭집에는 다층으로 된 둥지를 트는 공간, 밤에 쉬는 거실, 계란을 품는 방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샵들리에 장식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1억 원 넘는 닭집 우리 집보다 좋아 보여", "1억 원 넘는 닭집 럭셔리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헤럴드경제



필리핀

정부, 가금류 이점에 대해 홍보

필리핀 과학기술부서(DOST)의 식품 영양 연구소(FNRI)는 자체 영양 통신 네트워크(Nutricomnet)를 통해 육류와 가금류를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리핀 정보기관에서 열린 영양 통신 네트워크 미팅과 미디어 포럼이 열리는 동안 연설자인 Ma Susana O. Encarnacion과 Salvador R. Serrano는 참가자와 함께 육류와 가금류를 먹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포럼기간 동안 육류와 가금류 모두 양질의 단백질 원천이며,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DOST는 육류와 가금류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이 중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 인, 철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 The Poultry Site

러시아

2011년 때 보다 많았던 8월 가금류 생산

국가 통계서비스 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금류 생산량은 약 227,000톤으로 2011년 8월 생산량에 비해서 16% 증가했다.

이번 달 소고기 생산은 4.4% 증가해 110,000톤이었고, 돼지고기 생산은 8.9% 증가해 76,900톤이었다. 여기에는 부산물들도 생산 수치에 포함되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살아있는 가금류 및 소가 2660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

8월 달의 가금류와 소의 생산은 2011년 8월보다 8.6%로 증가해 900,00톤이었다.

- World Poultry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라벨이 잘못 부착된 IQF 닭고기에 대해 응징

전국에 걸쳐 판매되고 있는 IQF(Individually Quick Frozen, 개별급속냉동) 닭고기에서 적법한 라벨링 부착해야 하는 규정을 불이행하는 정도가 많아지면서, 남아공 보건부는 소비자에게 주의 발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동 발표에는 많은 예로 소비자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과 가금류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보건부 대변인인 Fidel Radebe에 따르면 많은 이러한 제품들은 라벨링에 IQF 닭고기가 소금물을 기조로 한 혼합물 또는 용액을 가공업자가 추가한 닭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혼합조제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 소금, 식품첨가물로 구성되며 점증제, 향료가 추가된 이 소금물 용액은 닭고기에 주입되는데, Fidel Radebe는 몇몇 경우에 있어 닭고기에 추가된 소금물 용액의 비율은 30%까지 허용되며 29%는 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것이 영양적 측면에 있어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금 함유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확하거나 때로는 제품에 부착되지 않은 라벨링이 식품 안전 이슈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부가 남아프리카가금류협회를 통해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가금류 산업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관계는 2010년 3월 제정된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한 규정' 과 1972년 제정된 '법률 제54호'에서 정하고 있는 라벨 표시를 가공/판매되는 IQF 닭고기 제품에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함이다.

그는 “하지만 몇몇 가공업자/판매자들의 협력 부족으로 보건부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할 때 속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벨에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심쩍거나 불완전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판매자나 판매점 대표에게 판매 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Radebe의 발언은 더 나아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소비자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조사연구와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대도시, 지자체에 의해 고용된 환경보건 전문가 (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s, EHPs)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그는 보건부가 그들이 관할지역 내에 있는 가공업체/판매점에 방문하기를, 그리고 IQF 닭고기 제품의 라벨링이 규정 불이행으로 나타난 곳에서 적절한 법률집행 단계가 반드시 실행되어지기를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 Food Stuff South Africa

사우디아라비아

트위터에서 가금류 불매운동 확산

닭의 가격 상승에 불만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 활동가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식품의 보이콧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매유통업체들은 보이콧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Let it Rot(씩게 놔두자)”, “Poultry Boycott(가금류 구매거부)”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내건 캠페인은 지난 주 마이크로 블로그 기반의 트위터에서 시작됐으며, 가격이 치솟은 뒤 사우디 사람들이 닭고기의 소비를 포기하기를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의존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촉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자는 캠페인은 무시되었던 적이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우리는 소비자로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상인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몇몇 트위터 활동가들은 닭고기의 판매량이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 게시된 리야드 북쪽의 도시인 부라이다의 한 가금류 시장에서 찍힌 한 사진에는 강력한 보이콧 때문에 상인들이 그들의 상점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사업은 여느 때랑 다를 바 없으며, 캠페인이 닭고기 소비자를 떠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닭고기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제다의 홍해 시에 있는 가금류 공급업자인 Anwar Saleh는 전했다. 그는 다른 육류 가격은 더 높기 때문에 닭고기를 보이콧 하자는 캠페인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라고 말했다.

가금류 농장주들의 정보에 따르면 신선한 가금류의 가격은 지난 6개월간 20~30% 증가했고 동시에 냉동 닭고기의 가격은 15%가량 올랐다.

통상부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료가격이 30~40% 급등한 탓에 닭고기 가격의 증가가 있었다고 떠넘겼다.

정부는 지역시장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모든 닭고기 수출을 제한했다.

석유강국인 사우디의 인구는 2,700만을 넘어서고 있고, 30% 가량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 FRANCE24(12.10.07)


■ 식품매장 검사 강화산

Makkah의 Aziziah 자치당국은 건강한 Haj를 보장하기 위해 주 지역의 시찰 방문과 시장 및 판매하는 식품의 저장고 감시를 강화했다.

자치당국장인 Turki Izzat은 감독관들이 급작스러운 방문을 통해 레스토랑과 도축장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문으로 570kg의 썩은 고기, 750팩의 각기 다른 식품들,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고기들을 발견했다.

행상인들에 관해서 Izzat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몇몇 정부 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관계 기관에 넘겨주는 일을 진행한다.

그는 순례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제기되는 어떠한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도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SAUDI GAZETTE